

온도, 최아정도, 토양수분함량에 따른 벼 직파재배 입모율 조사

양서영^{1*}, 황운하²

¹전북 완주군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

²전북 완주군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

[서론]

벼 직파재배 시 온도, 종자 최아정도, 토양수분함량 조건에 따른 품종별 입모율 및 초기 생육을 알아보고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종자 최아정도, 토양수분함량을 달리하여 종자를 파종하고 각각 다른 온도(18, 22, 25℃)에서 입모율 및 모초장 등을 관찰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파종 후 14일간 입모율과 모 초장을 관찰한 결과 입모율은 두 품종 모두 25℃에서 가장 높았고 22℃, 18℃순으로 나타났다. 반면 토양 수분함량은 적을수록 입모율이 높게 나타났다. 종자 최아정도가 입모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. 품종의 경우 평균적으로 25℃에서는 신동진이, 22℃, 18℃에서는 운광이 입모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. 시간이 경과할수록 25℃, 22℃에서는 입모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지만 18℃에서는 2주가 지나도 계속 증가하였다.

모초장은 25℃, 22℃, 18℃ 순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길었다. 또한 물높이가 토양의 높이보다 낮은 처리구가 모초장이 양호했으나 물이 토양높이보다 높은 처리구는 모가 길게 자라지 않았다. 파종 시의 종자의 최아 길이가 길수록 모초장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. 품종의 경우 신동진과 운광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신동진이 조금 더 생육이 양호하였다.

[사서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(과제번호: PJ012071042018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.

*주저자: Tel. 063-238-5362, E-mail. seoy45@korea.kr